

칼빈의 교육 사상에 대한 연구 -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권 태 경

- | | |
|------------------------|------------------------|
| 1. 서 론 | 3. 칼빈의 교육 사상과 제네바 아카데미 |
| 1. 1559년 이전 제네바의 교육 개혁 | II. 맺는 말 |
| 2.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과 교육 제도 | |

I. 서 론

지금까지 국내의 종교개혁사에 대한 연구는 종교개혁자에 대한 사상과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필자는 종교개혁사 연구의 대상과 내용이 좀더 다양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종교개혁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필자는 종교개혁시기의 교육에 문제가 16세기 개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연구참여자 : 주연중, 박사

측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을 교육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오늘날 21세기 바람직한 교회 개혁의 방향을 교육 목회에 설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종교개혁에 대한 새로운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종교개혁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16세기 종교 개혁가들 가운데 특히 독일의 마틴 루터와 멜랑흐톤 그리고 존 칼빈의 개혁 사상을 검토하면, 우리는 그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알 수 있다.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개혁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본고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칼빈의 교육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론 제1장에서는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되기 이전의 제네바의 교육 개혁안을 검토하고, 제2장에서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과 교육 제도 및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 제네바 아카데미와 칼빈의 작품을 통해 나타난 그의 교육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16세기 종교개혁의 사건이 단순한 교회 개혁의 사건의 아닌, 개혁은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개혁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보여진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조화와 교양과 인문학의 중요성이, 오늘날 대학의 교과 내용의 문제와 기독교 학문과 지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1559년 이전 제네바의 교육 개혁

칼빈의 교육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제네바 아카데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¹⁾ 필자는 이 장에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 이전의 제네바의 교육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네바 교육 개혁을 위한 칼빈의 활동은 시기적으로 3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1) 초기: '콜레주 드 라 리브'(The College de la

Rive)의 1536년-38년 2) 중기: 교회법과 제네바 교리문답의 시기, 1541년-56년: 3) 말기: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의 1557년-64년.²⁾

칼빈의 당시 1365년 황제 찰스 4세는 제네바의 대학 설립을 위한 칙서를 공포했으나, 대학 설립의 계획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1429년 지방 상인 프랑소아 드 베소넥(Francois de Versonnex)는 시의회가 운영하는 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금을 내었지만, 학교 설립 발전에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이후 1492년에 가서야 그랑드 에콜(grande ecole)이 설립되고, 1502년경에 이르러 체계적인 교육이 제네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랑드 에콜을 순수하게 학문적인 훈련을 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학교의 교과목도 라틴어 정도를 배우는 수준이었으며, 더 필요한 공부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³⁾

이후 제네바에 새로운 교육 발전안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1536년 5월 21일 칼빈이 제네바에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안과 가난한 아이들은 무료로 학교에 다닐수 있는 교육안이었다. 이로 인해

-
- 1) 칼빈의 교육 사상과 제네바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음을 참고하라. Peter Y. De Jong,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TJ 11 (1967); Gillian Lewis, "The Geneva Academy", *Calvinism in Europe 1540-162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4);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ED: Scottish Academic Press, 1988); Keith Randell, *John Calvin and the Later Reformation* (London: Hodder & Stoughton, 1990); Paul A. Kienel, *A History of Christian School Education* V.1 (Colorado Springs: ACSI, 1998); Philip E. Houghes, *The Register of Company of Pastors in Geneva* (1966); Karin Maag, *Seminary or University* (Hants: Scolar Press, 1995), 196-198; John B. Roney and Martin Klauber, *The Identity of Geneva* (Westport: Greenwood Press, 1998).
- 2) Park, Sang Il, "The Implications of John Calvin's doctrine of educ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New York Univ. Ph. D Thesis*, 5.
- 3) W. Stanford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WTJ* 58 (1995), 6.

‘콜레주 드 라 리브’(The College de la Rive) 공립학교가 세워졌다.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은 앙토안느 소니에르(Antoine Saunier, 1536년)였고, 다음해 교장은 칼빈의 스승인 마수린 코르디에(Mathurin Cordier)이었다. 이 학교는 1538년에 가서야 체계적인 교육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 학교는 구체적으로 읽기, 쓰기, 문법, 종교 교육을 강조했으며, 커리큘럼에 신구약이 있었는데, 구약은 파렐(Guillaume Farel)이 담당하였고, 신약은 칼빈이 매일 강의를 담당했다. 이러한 교육 체계와 내용은 비교적 이전과는 다른 분명 발전된 교육 내용이었다.⁴⁾ 1536년 5월 21일 총회의 논의를 살펴보면, “여기(총회)에서 학교에 관한 조항이 제의되었으며,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학자를 모시도록 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업료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에게 봉급을 지급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어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모든 학자와 교사들은 교장과 그의 학생들이 있게 될 큰 학교(공립학교)에 그들의 거처를 의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등의 사항들을 결의했다.”⁵⁾

이 결의에는 최소한 세 가지 흥미로운 조항들이 있다. 첫 번째 조항은 종교개혁과 교육간의 유대는 이 회합에서 단지 학교 문제만을 처리하고 있을지라도 언급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예컨대 교회나 구빈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두 번째 조항은 이 교육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시 경비로 충당되어 무료였다는 것이다. 마지막 조항은 그것은 의무 교육이었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앙토안느 소니에르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수업은 이전에 수도원이었던 ‘드 리브’(de

4) C. Bourgeaud *Historie de l'Universite de Geneve*, Geneva, 1990 I, 16;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7-8.

5) Opera, 21, 202. R.C. V. 29 fol.112. 재인용 프레드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220-221.

Rive)에서 열렸다. 이 교육의 목적은 고대의 3학(trivium: 문법·논리·수사학) 가운데 단지 문법만을 가르치는 아주 간소한 것이었다. 소니에르는 공중 예배 문제에 대한 시의회 의 요망 사항에 따르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 시를 떠난 후 곧 제네바를 떠났다. 칼빈이 돌아온 뒤에는 '이단자', 세바스티앙 카스텔리오(Sébastien Castellio)가 1541년부터 1544년까지 교장에 재직했다.⁶⁾

칼빈은 1538년 1월 12일에 제네바 공립학교 설립을 위한 중요한 문서를 그의 노교수인 코르디에와 소니에르가 함께 발표했다. 이 문서에 보면, 학교는 능력있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어서 가난한 학생들이 학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교장은 두 명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일하고, 학생들은 신학, 교양학, 과학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칼빈이 볼 때 이 과목들이 종교개혁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한편, 칼빈은 세속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종교적인 훈련만큼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칼빈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교양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외에 학생들이 배우는 기타 교과목으로 종교, 언어, 인문학이 있었다.⁷⁾

제네바에서 1538년에 칼빈, 파렐, 코르디에가 추방되면서, '플레주드 라 리브' 학교의 운영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1541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교회법'이 11월 20일 공포되면서 칼빈의 제네바 교육 개혁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처와 존 스톰(John Sturm)의 교육 사상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교회법'에 보면, '목사' 다음으로 중요한 '교사(doctors)'를 명시하면서, 이들의 책임이 신학 강의를 하는 것이라고

6)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221.

7) J. Chr. Coetzee, "Calvin and the School",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R: Eerdmans, 1959), 201.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교회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불모의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회와 시민정부에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college) 설립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⁸⁾ ‘교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541년 ‘교회법’ 규정의 내용을 분류하면, 직제와 예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서문에서 보여지듯이 1) 주의 복음진리가 순수하게 견지되며 2) 교회가 바른 질서와 체제의 허용으로 확립되며 3) 후대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바르게 교육되며 4) 빈곤자를 위한 병원이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 4개의 직제가 존재할 것이 제시되어 있다. 즉 그 규정은 ‘교회의 바른 질서로 온전히 보전하기를 위하여 정치형식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교회법’의 직제는 4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목사와 교사, 장로, 집사이다.⁹⁾

칼빈이 ‘교회법’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첫째는 교사를 교회의 직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의 직분이란 학교의 직분을 말하는 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함께 목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교회법에 순종하여야 한다. 둘째로 칼빈은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를 위하여 후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회가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성직자의 양성과 함께 신실한 시민을 양성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그는 자녀들에게 요리문답을 교육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주일 정오에 교회로 데리

8) B. J. Kidd, *Documents Illustrative of the Continental Reformation* (Oxford, 1911), 594. 재인용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8.

9) 김득룡, “제네바 교회 헌법 규정 연구”, *신학지남*, 44 (1977), 27;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총신대출판부, 1989), 174.

10)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174-175, cf.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by J. K. S. 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 22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 1954), 58-72.

고 와서 엄숙하게 교육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일련의 제네바 교육 개혁안과 발전에 대한 노력이 기대한 것만큼 진전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제네바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칼빈의 교육에 대한 제안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특히 종교적인 이해 관계로 인하여 약간의 갈등도 있었다. 1541년부터 1556년 까지 개혁파와 리버틴파와 카톨릭주의자 그리고 정치인간의 갈등이 심하여 학교 발전에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칼빈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보다 구체적인 학교의 설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¹¹⁾ 1557년에 제네바가 루터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칼빈이 환영을 받지 않았으나, 스펜(Sturm)과 도시의 교육자들은 제네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칼빈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네바의 사람들은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경험한 교육 발전 안을 제네바에서도 시행하도록 칼빈에게 요구하였고, 이것이 칼빈의 제네바 대학의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되는데 있어서, 칼빈이 그의 종교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얼마나 교육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¹²⁾

2.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과 교육제도

이 장에서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 제도와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자신의 설교와 교리문답으로 교회 교

11)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 Oxford Univ. Press, 1954), 192-193;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9.

12)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9. 참고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192 이하. 제네바 아카데미에 대한 국내 연구로, 이은선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라.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과 교양교육", *신학연구* 5 (1997, 가을). 이은선, "종교개혁기의 신학교육", *신학연구* 6 (1997, 겨울).

육과 개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혁의 방안으로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개혁을 구상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학교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칼빈은 전술한 1538년의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을 통해 주장하기를, 인문학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제네바의 학교는 성직자 교육만이 아니라 시민교육에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성경과 인문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학교 설립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1559년의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을 통해 알 수 있다. 칼빈의 교육활동 가운데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은 가장 획기적이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교육에 대한 이상과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코제프(Coetzee)는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운 목적을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그에게 있어서 면류관과도 같은 성취였다고 하였다.¹³⁾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을 이해함에 있어, 먼저 아카데미의 설립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주요 수입원은 세가지였다. 먼저 시민들로 하여금 살아 있을 때와 유언을 할 때 기부금을 희사하도록 권유하는 노력인데, 1559년에 일천 플로랭이 조금 넘는 돈이 유언자들의 죽음으로 수령되었다. 두 번째 수입원은 벌금을 통해 들어오는 고정 소득이었다. 같은 해에 앙트안느 뮈니에르(Antoine Munier)의 부인이 피륙을 재는 지를 속인 죄로 25에쿠스(écus)의 벌금을 물었는데, 그것이 제네바 대학에 제공되었다. 그리고 (칼빈과 관계가 좋지않는) 베렝파가 1559년에 건축비로 30,000플로랭 이상을 후원하였다.¹⁴⁾ 이러한 베렝파의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제네바 대학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나,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여 시

13)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178; J. Chr. Coetzee, "Calvin and the School", 197-226.

14) Roget V 232, 233, Monter, 25 재인용, *그레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225-226.

민들의 모금이 필요하였다. 칼빈 자신도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후원에 참여하도록 집집마다 방문하였다. 모금에 도시의 거주자들이 대대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칼빈을 지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로베르 스테파누스가 거액을 헌납하였고, 가난한 사람들도 몇 푼의 돈을 내어 놓았다.¹⁵⁾

재정 확보 후 제네바 아카데미는 교수진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제네바 시에서는 칼빈에게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수진의 천거를 의뢰하였다. 누구보다도 칼빈이 초청하고 싶은 사람은 그의 스승 고르디에였다. 고르디에는 1562년 2월 16일 82세의 나이로 로잔에서 제네바에 돌아 오게 되었다. 이외에 교수진으로 칼빈의 절친한 친구 뻬에르 비레를 비롯하여, 새로운 아카데미의 첫 학장(rector)이 된 테오도르 베자 그리고 헬라어의 프랑소아 베로드(Francois Bérauld), 히브리어를 맡은 앙토안느 셰발리에(Antoine Chevalier) 그리고 교양학의 전 따고(Jean Tagaut) 등이 구성되었다.¹⁶⁾

재정과 교수진이 확보되면서, 결국 제네바 아카데미는 명실상부한 학교로 개교되었다. 1559년 6월 5일, 제네바 의회 의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수들과 아카데미 회원들과 60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성베드로 교회에 모여서 제네바 아카데미 개교식을 가졌다. 이 학교의 초대 학장이며 칼빈의 후계자인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는 개교식에서 다음과 같은 취임 연설을 했다. “(이 아카데미는) 그리스의 운동 선수 양성소(gymnasia)처럼 단기적인 목적의 경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

15)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이레, 2001), 416.

16)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0. cf.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416-17. 제네바 아카데미(1559년-1620년)의 교수진의 명단은 Maag, *Seminary or University*, 196-198 를 참고하라.

서 선교에 쓰임 받을 군사를 양육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¹⁷⁾ 이 개교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중의 하나는 제네바 학칙을 읽는 것인데, 이 학칙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학칙의 내용과 표현을 보면 칼빈이 저자라고 볼 수 있다.¹⁸⁾

당시 제네바 아카데미의 운영은 교회와 관련이 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교회의 통제를 받았다. 각 교사는 엄격한 교회규율의 규제를 받았으며 성직자들에 의해 임명되었다. 교사들은 ‘제네바 신앙고백서’에 서명해야 했고, 그들은 자기 학생들의 신앙과 생활을 면밀히 감독했다. 학교는 학장에 의해 운영되며 그 임기는 2년이었고, 고등과정 (*schola publica*)의 학생들의 입학과 학위수여의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학감 (*principal*)이 있었는데, 학감은 초등과정 (*schola privata, college*)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학장을 도우며 각 부처의 일이 잘 진행되는지를 관장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다. 학장 아래에 평의원(*regents*)과 각 학년의 여러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 지도의 책임을 갖고 있었다. 학장 아래에 대학 수준의 학업을 지도하는 히브리어, 회랍어, 교양학 그리고 신학의 교수들이 있었다.¹⁹⁾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사일정을 살펴보면, 초등과정(*schola privata*) 학사 일정은 5월 1일에 시작하여 12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포도수확기엔 3주간의 방학을 허용했다. 수업 시간이 여름에 오전 6시(겨울에는 오전 7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끝나고, 아침식사 시간이 30분이며 점심시간이 90분에서 2시간 정도 된 것을 보면 수업 시간이

17)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이레, 2002), 52; 엘머 타운즈,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임영금 역(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4), 252-253.

18) Bourgeaud *Historie de l'Universite de Geneve*, 1, 43 재인용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0.

19) Bourgeaud *Historie de l'Universite de Geneve*, I, 44, 재인용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1-12 cf. 엘머 타운즈,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임영금 역(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4), 253.

힘드는 일정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기전 학생들이 기도문과 십계명을 외우고, 마지막 훈계를 경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종결했다. 학년말인 4월경에 학생들은 어떤 한 주제를 놓고 불어로 에세이를 쓰고, 다시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칼빈은 학생들이 작문할 때에 그들을 지도하지 않는 교사들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학장은 각 반의 우수한 수필 두 편에게 상을 주었고, 일부 학생의 수필은 정정해 주면서 그것을 진급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²⁰⁾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학기 중 수요일마다 두 시간의 레크레이션이 있었고, 토요일마다 12시부터 3시까지 또 한번의 휴식이 있어 수업의 긴장을 풀게 했다. 교과 과정에 고전 시간이 현저히 많은 것을 볼 때, 제네바 아카데미는 전형적인 르네상스 학교였다. 제네바의 소년들은 라틴어로 유창한 연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치 소르본느의 박사들처럼 말한다는 소문이 생겼다. 칼빈은 스팀(Sturm)처럼 키케로를 모델로 해서 라틴어 회화와 작문의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했으며, 시편은 라틴어가 아니라 불어로 불렀다. 매일 11시부터 12시까지 그것을 위해 할애되었다. 요한 할러(Haller)를 비롯한 빠른 사람들은 이 학교가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에 주로 프랑스 출신의 소년들 162명으로 시작한 이 학교는 약 6년 만에 학생 수가 10 배로 늘어났으며, 학생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왔다.²¹⁾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제도를 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다. 먼저 초등과정의 라틴 학교인 'schola privata'에서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읽고 배우며 변증법을 공부하며, 그리스와 로마의 많은 고대 학자

20) Bourgeaud *Historie de l'Universite de Geneve*, I 44. 재인용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2 cf. 타운즈,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254-55.

21) 존 맥네일,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양낙홍 역(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222. 제네바 아카데미 학생의 출신 국가와 경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라. Karin Maag, *Seminary or University* (Hants: Scolar Press, 1995), 30.

들의 글을 읽었다(Vigil, Cicero, Ovid, Caesar, Isocraes, Livy, Xenophon, Polybius, Homer, Demosthenes등). 두 번째 단계는 고등과정('schola publica')인데, 여기서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적으로 공부하였는데, 즉 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문학, 변증학과 수사학, 물리학, 수학, 민법 등이다.²²⁾ '학교 법규'에 따르면 교육제도가 두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학교 행정은 단일 체제로 운영되었다. 먼저 아카데미의 기초 과정인 초등과정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 과정은 6세 또는 7세부터 16세까지의 아이들로, 학업 과정은 1학년에서 7학년까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각 학년에 필요한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았다.

21)

표 1.1 Students' place of origin, 1559-64

Years	Fance Piedmont	Italy/ Piedmont	Swiss States	Geneva	German States	Netherlands	England/ Scotland	Scandinavia	Eastern Europe	Unknown
1559	44	7	4	3	6	2	2	0	0	0
1560	38	7	0	0	2	3	1	0	0	1
1561	13	1	3	0	1	0	0	0	0	1
1562	20	0	1	0	0	1	0	0	0	0
1563	79	5	4	2	1	1	0	0	0	2
1564	51	3	9	0	4	4	0	1	2	9

Source : Stelling-Michaud, 1959-1980, *Le Livre du Recteur de l'Académie de Genève*.

표 1.2 Students' later career, 1559-64

Years	Minister/ Professor	Civil Service	Lawyer	Medical doctor	Merchant/ Artisan	Noble	Died young	Secretary	Not known
1559	40	5	0	5	1	0	1	0	16
1560	24	3	1	0	1	1	0	0	22
1561	8	1	0	0	0	0	0	0	10
1562	6	0	0	0	0	0	0	0	16
1563	29	3	3	2	0	1	1	0	56
1564	38	3	0	0	0	0	0	1	41

Source: Stelling-Michaud, 1959-1980, *Le Livre du Recteur de l'Académie de Genève*.

22)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417.

7학년: 문자에 관한 초보 학습, 라틴어-불어 철자와 작문, 불어 읽기, 라틴어-불어 교리문답 읽기

6학년: 첫 6개월 동안 어형 변화와 활용에 관한 기초 원리 학습, 다음 6개월간 말하기에 필요한 것과 그것에 관련된 문제들, 불어와 라틴어 비교 방법, 라틴어 초보 연습

5학년: 더욱 정확히 말하기, 문장 구성의 간단한 원리, 버질(Virgil)의 목가시, 논리적인 글쓰기의 첫째 원리

4학년: 라틴어 구성에 관한 마지막 부분, 키케로(Cicero)의 짧고 유명한 구절, 짧고 쉬운 주제, 음절과 그 중요성, 오비드(Ovid)의 애가, 드 트리스티부스(De Tristibus)와 드 폰테(De ponte), 그리스어 읽기와 간단한 어형 변화와 활용

3학년: 고급 그리스어 문법, 라틴어, 그리스어의 언어와 작문 규칙, 키케로 작품인 드 아미시티아(De Amicitia)와 드 세넵투트(De Senectute), 버질의 아에네이드(Aeneid), 키케로의 커멘터리(Commentaries), 이소크라테스(Isocrates)의 격려문(the Hortatory Speech)

2학년: 리비(Livy)의 로마사, 크네노폰(Xenophon), 폴리비우스(Polybius), 헤로디안(Herodian)의 그리스 역사, 호머(Homer) 읽기, 변증법의 원리 등, 명제의 세분화, 키케로의 역설(the Paradoxes)에 관한 논문과 추론, 그의 짧은 연설문. 토요일 3:00~4:00의 그리스어 누가복음의 쉬운 번역

1학년: 고등 변증법, 수사학과 웅변 원리, 키케로의 고등 담론, 데모스테네스(고대 그리스 웅변가, Demosthenes)의 올리시악스(Olythiacs)와 필립픽스(Philippics), 호머, 버질 모음집, 문제 연습, 매달 수요일 두 차례의 웅변 대회, 토요일 3:00~4:00의 사도 서간 쓰기 와 읽기.²³⁾

23)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53-54;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1, 26-28.

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초등과정 ('schola privata,' college)에서는 학생들에게 이해력과 표현력을 강조하였다. 당대의 다른 교육 기관과 달리, 제네바 아카데미는 라틴어와 불어, 고전어의 지식을 강조하였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언어를 읽고 쓰는데 유창하도록 교육 하였다. 그리고 11세나 12세가 되면, 그리스어를 배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언어 훈련이 전체 교육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 구문과 작시법, 수사학등을 강조했다. 동시에 앵무새와 같이 반복하는 것을 막기위해, 학문에 필요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기본 언어의 문법과 용법을 비교하면서 교육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우는 것을 생각하기를 기대했다. 논리적 사고와 더불어 수업의 마지막 2년 동안은 변증학을 가르쳤고, 에세이 작성을 실습하고 15일간의 공개 토론 강의를 하였다.²⁴⁾

제네바 아카데미의 연장 교육으로 두 번째 단계인 고등과정('schola publica')이 있는데, 이 고등과정은 처음에 교육에 고전을 강조하고, 다른 중요 학문인 신학과 교양학을 가르쳤으나, 이후 칼빈은 법률과의 학을 첨가하기를 희망했다. 이것은 학생들을 실제로 교회와 사회에 더 유익한 인물로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본과의 교육 과정은 매주 27시간의 공개 강의인데, 이 강의에는 신학이 3강의, 히브리어와 구약이 8강의 윤리가 3강의 희랍어의 웅변과 시 등 5강의 를 비롯하여 전체 27개 강의가 개설되었다. 학생들은 매달 한번씩 신학적인 한 주제를 변호해야만 했는데, 먼저 그 논문은 신학 교수에게 제출한 뒤 공개 토의에서 구두로 변호해야만 했다. 학생들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 낸다면 그들에게 적절한 학위가 인정되었다. 교육과정에 교양과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학문을 통해 학생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배우게 된다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제네바 아카데미는 실천적인 교육

24)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3-14.

을 가르치는 학교이며, 동시에 교회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훈련하는 교육의 장이었다.²⁵⁾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에서 교양학은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다. 교양학 교수는 자연과학과 수학을 매주 세 시간씩 가르쳤다. 주당 3시간의 교육시간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적은 시수이지만 당시의 학문의 중요성이 없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칼빈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부단히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보면서, 자연을 하나님의 의복으로 믿었다. 칼빈은 창조론에 근거하여, 자연의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연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칼빈에게 자연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고 하였다... 신약은 신학교수에게 넘겨주었다. 칼빈과 베자는 격주로 교체하면서 월, 화, 수요일에 강의했다. 그들은 성경해설에 치중했고, 칼빈의 주석서가 나온 것은 일차적으로 이 강좌의 결과물이었다.²⁶⁾

교양학 교수는 오전에 자연과학을 강의하지만, 오후에는 수사학을 강의하였다. 교양학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를 주교재로 하고 키케로를 예증으로 삼아, 설교의 이론과 실제, 법적 변론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법률가가 되어 변론을 할 때나 행정가가 되는 일에 필요한 실제적인 훈련이었다. 따라서 칼빈이나 칼빈의 제자들이 볼 때, 수사학은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었다.²⁷⁾ 히브리어 교수는 오전에 유대 주석의 도움을 받아 구약 성경의 본문을 주해하며, 오후에는 히브리어 문법을 강의했다. 칼빈은 제네바가 히브

25)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4-15. cf. 정두섭, "교육신학의 관점에서 본 John Calvin의 제네바 개혁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교대원 논문*, 1983, 79-80

26) 타운즈,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255. cf. 재인용 L. Nixon, 131. cf.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5.

27)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5.

리 연구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랐다. 다른 한편 제네바 아카데미의 헬라이어 교수는 이상하게도 신약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미 학생들이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신약 주해는 신학 교수에게 일임하고 헬라이어 교수는 윤리학에 대한 서적을 강의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플루타아크(Plutarch), 기독교 철학자들이 소개되었다. 오후 강의에는 그리스 시인들과 연설가, 역사가들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칼빈의 인문주의에 대한 분명한 관심과 세상 학문과 지식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고등과정('schola publica')의 수업은 칼빈과 베자가 번갈아 가면서 매주 신학 강의를 하였다. 이 일은 직위나 급료와 관계없이 신학 교수들의 의무였고, 성경 주해하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후 칼빈의 설교 주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칼빈과 베자의 성경주해 방법은 실제로 성경이 가르친 것을 드러내기 위해,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 르페브르 데타플리아(Lefebvre dEtaplea)와 다른 사람들의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주해 방법론을 따르며, 중세의 공상적이며 신령한 해석을 거부했다. 이것이 결국 개혁주의 성경 강해에 기반을 놓은 것이 되었다. 또한 신학 강의를 수강 신청한 사람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한시간씩 복사의 지도 하에 성경 본문의 하나를 설명해야 했고, 매달 신학의 어떤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갖도록 훈련하였다.²⁸⁾

지금까지 살펴본 제네바의 교육제도를 보면, 기독교 교육이 고등과정('schola publica')에서만 강조된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신학 문제에 대한 논쟁이 초등과정('schola privata')에는 없었지만,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숙사에서 모든 초등과정의 학생들은 수요일과 주일에 2번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에 가야만 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주일날 학생들은 설교를 듣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노트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

28)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6.

다. 더욱이 모든 수업이 교리문답의 기도로 시작하고, 주기도문과 신앙 고백서와 십계명을 암송함으로 끝이 났다. 수요일에도 설교를 마친 후, 한시간 정도 시편을 찬양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처럼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기독교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이 이러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네바와 다른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훈련 받기를 기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⁹⁾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제네바 아카데미'의 규정인데, 이 규정에 보면, 기독교 교사가 가져야 할 개인적인 자격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김나지움의 기능에 관하여: "개별 수업을 교수하기에 합당한 교사들은 훌륭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 교장에 관하여: "(교장은) 경건한 자로 인정된 사람이 될 것이고, 적어도 상당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온화한 성품을 가진 자로,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가능한 한 어떤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참을성 있게 그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된 특권을 가진 자이다." 교목에 관하여: "교목은 뛰어난 경건과 학문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받는 자가 선택되어야 한다."³⁰⁾

제네바 아카데미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 신학을 강조하였는데, 모든 학문의 왕좌로서 문학과 철학과 과학은 이를 위한 준비 과목들이었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목표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인의 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개혁신앙을 가진 목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아카데미

29)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6-17.

30) Frederick Eby, *Early Protestant Educators* (NY: McGraw-Hill Book, 1931), 254, 255, 262. 재인용,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207.

를 처음 열었을 때 학생수가 무려 6백 명이었다. 첫 해에 총 등록 학생수가 9백 명까지 늘어났다. 선생들과 학생들의 이름을 보면, 유럽 전역에서 이 학교에 몰려들어 왔음이 매우 인상적이 아닐 수 없다. 5년 안에 초등과정은 1천 명으로 불어났고, 공립과정은 3백 명이 되었다. 건물은 1564년에 가서야 완공을 보게 되었는데, 이 무렵엔 학생수가 천 오백 명에 다다랐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온 자녀들로서 주로 신학과 법학에 능한 인재들로 성장하였다.³¹⁾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제시한 개혁은 교육의 기관으로 교회와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교회와 학교는 기독교 교육의 두 날개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칼빈이 의도하는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보여준, 초등과정과 고등과정의 교육 제도와 내용 그리고 이들간의 조화는 당면한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는 아주 이상적인 안을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³²⁾

3. 칼빈의 교육 사상과 제네바 아카데미

이 장에서는 제네바 아카데미와 그의 저작을 통해 나타난 칼빈의 교육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의 교육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인문주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칼빈의 종교개혁이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은 루터파의 영향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칼빈 자신은 파리대학에서 학생으로 인문주의 운동에 참여했다. 그의 초기 저서는 세네카(Seneca)의 책, 특히 키케로(Cicero)의 주석서였다. 칼빈은 과학과 실제 기술에 관한 고대 서적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르칠 가치

31)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418-19.

32) 오형국,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과 인문주의 관계”, *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년 2월).

가 있다고 확신했다.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언급하기를, “우리는 이런 제목들 (율법, 철학, 수사학, 의학, 수학 등)에 관한 고대 서적들을 경탄 없이는 읽을 수 없다고 하였다.³³⁾

제네바의 교육 방침에서 보여진 바 대로, 칼빈은 무엇보다 인문학 특히 휴머니즘의 정신을 존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칼빈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의 학문도 가르쳤다는 사실이다. 칼빈에게는 소위 일반은총의 영역이 따로 있고, 구원은총의 영역이 따로 있어서 서로 관련 없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야말로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전환점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제네바에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인간됨을 가르치는 인문학의 발전과 이와 상충되지 않는 하나님의 학문 천국의 지혜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칼빈의 2가지 교육방침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³⁴⁾

칼빈이 인문주의에 관심을 둔 것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에서 키케로와 웅변술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칼빈은 '고린도 전서 주석'에서 웅변술에 대하여 강조하기를, “이 기술이야말로 틀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은사이며, 우리는 이 은사를 인간이 값

33) 이근삼, “기독교성사와 기독교 대학운동”, 통합연구 1 (1988), 7; 기독교강요 2, 2, 15. 일반적으로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 시기에 나타나는데, 르네상스 시기의 대학은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인문주의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문주의자들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을 위한 학문(L'art pour l'art)의 정신을 추구하기에는 중세 후기의 대학들이 지나치게 직업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문주의자들이 문학, 역사, 시 등에서 순수학문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에 당시 대학들은 이미 성직자, 관료, 의사, 법률가들을 배출시키는 실용적 전문인 양성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인문주의, 즉 '신학문'(new learning)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지속적이고 또 강화되었다. 이석우, *대학의 역사* (서울:한길사, 1999), 394.

34)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419-20.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기술은 건전한 지식을 내포하고, 진리의 원리들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비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이런 기술은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틀림없이 적절한 것이며, 그것들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웅변이 외형적인 어떤 화술로써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거나, 공허한 기쁨으로 그들을 도취하게 하고, 달콤한 말로 귀를 즐겁게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허식으로 은폐하여 버리지 않는 한, 그 웅변을 정죄하거나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 한편 우리는 그 웅변의 목적이 우리를 복음의 단순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십자가의 설교를 고조하며 스스로 겸손하게 하며, 마침내 그런 어부들과 무식한 대중들이 다른 어떤 인위적인 매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말씀 선포자의 의무를 다하게 한다면 그 웅변을 정죄하거나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체로서 역시 탁월한 웅변성을 갖는다”고 대답한다.³⁵⁾

웅변술의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성경을 이해함에 세상 학문이 도구가 됨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

35) 존 칼빈, *고린도전서*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79), 고전 1: 17. 칼빈이 인문주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대 정신이었다.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은 대학의 교육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종교개혁기의 대학 교과 과정의 개혁은 종교개혁가들의 염원이었다. 특히 루터의 경우 1581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마치고 비텐베르크로 되돌아오는 도중, 루터는 에르푸르트(Erfurt)에 있는 그의 동료 트루트페터(Jodocus Trutfetter)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나는 현재 가르쳐 지고 있는 교회법, 교령, 스콜라 신학, 철학, 논리학이 완전히 철폐되고 새로운 과목들이 제정되지 않는 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루터파가 추진한 교과과정 개혁의 핵심적 내용은 중세의 학문세계를 압도했던 논리학과 스콜라 신학을 배제하는 한편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총아인 인문학(studia humanitatis)과 성경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D. Martin Luthers Werke, Briefwechsel, 이하 WA Br, 1, p. 170, no. 74: 참고 박준철, “종교개혁기의 루터파의 성직자 교육”, *한성사학* (1998), 81-82.

육에서, 성경과 신학을 첨가하며, 수사학, 고전의 언어들, 학예, 그리고 우아한 표현법 등을 강조했던 것이다.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로 생각하면서도, 언어와 표현에 관해서는 권위자인 이교도 작가들을 끊임없이 언급했다. 칼빈은 세상 학문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성을 강조하며, 이것도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³⁶⁾ 싱어(Gregg Singer)는 ‘칼빈주의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칼빈주의가 교육의 모든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학문을 특별계시로 국한시키지 말 것을 말하였다. 칼빈이 말하는 문화적 사명감은 인간 지식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³⁷⁾

일부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이 필요없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칼빈은 그의 주석을 통해 세상 학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0절 주석에서 칼빈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다.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그의 자연적인 이해력 뿐 아니라, 경험이나 학문, 예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이해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와 대조 시키고 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이미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인간이 가진 것은 어떤 지식이나 이해를 막론하고 참 지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영적 교훈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앞 못 보는 맹인이 빛깔을 구별할 수 없는 것보다도 더 무가치한 일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아래의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1) 모든 과학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하늘 나라의 과학과는 거리가 먼 안개일 뿐이며, (2) 모든 재치를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스스로 이해하려

36)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7; 타운즈,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256, cf *칼빈의 고린도 주석*.

37) C. Gregg Singer, *John Calvin: His Roots and Fruits*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7), 56.

고 하는 것은, 마치 당나귀가 음률의 하모니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편, 창세기4:20 주석에서도 칼빈은 주장하기를, “예술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일상 생활에 현저한 다른 물건들을 발명한 것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비록 현금과 통소 같은 악기를 발명한 것이 우리의 필요성보다는 우리의 쾌락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 자체로서는 그다지 정죄 될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⁸⁾

칼빈이 세상 학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 학문 그 자체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인간의 예술과 학문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기를 원했다. 칼빈에게 교양학과 과학은 비난의 대상의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참지식을 인간에게 교육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포드 리드(W. Stanford Reid)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규정’에서 나타난 칼빈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이 기독교인의 섬김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러한 지식은 두 개의 수단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었다. 하나는 역사와 자연으로 고대의 사상과 자연 과학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자체는 구약과 신약 성경과 따로 떨어져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적절한 시각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섬김에 이르게 함으로써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며 구원자로서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높은 목적인 그분에게 영광 돌리게 한다.”³⁹⁾

38) 칼빈의 *고린도전서 주석 1:20*, 존 칼빈, *창세기*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79), *칼빈의 창세기 주석 4:20*절 참고.

39)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8-21;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56.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칼빈의 교육 사상에 있어서 일차적 목적인 동시에 핵심적 내용이다. 따라서 칼빈의 교육 과정은 내용 중심적이거나 방법 중심적이거나 또는 학생 중심적이 아닌, 목적 중심적이다. 즉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첫 장에서도, 사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제네바 교리문답서' (Genevan Catechism)에도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고등교육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중세의 지적 목적도 아니고, 인문주의자들의 단순한 문화적 목적도 아니고, 오로지 교회와 시민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실제로 '제네바 교리문답서'에서 칼빈은 자신의 교육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사: 인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사: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 그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처음이신 그분의 영광에 바쳐질 때만이 참으로 바른 삶입니다.

교사: 인간의 가장 큰 선은 무엇입니까?

학생: (위의 대답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칼빈이 생각하고 있었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40)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200.

41) 이근삼, "기독교성서와 기독교 대학 운동", 8. 칼빈은 제네바의 개혁 교회를 위해 1541년 교회법과 신앙교육서(제네바 교리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내용은 정일웅, *기독교신앙의 가르침* (서울:로고스, 1987)을 참고하라.

의 영광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⁴²⁾

칼빈은 그의 교육 목회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는 가운데, 두 개의 특수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고백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땅에서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히 위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확고하게 받아들여진 말씀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것과 왜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거기에 부응한 삶을 나타내 보일 것을 기대하신다고 보았다. 실제로 신자들은 진리를 듣는 데 충실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만 양육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경배와 섬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었으며, 동시에 교회를 교화시키는 수단이었다.⁴³⁾

우리는 칼빈의 교육 사상에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초임을 알아야 한다. 칼빈에게 성경은 그의 교육 사상의 기초이다.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보았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학교의 선생이며, 인간은 학교의 학생이다. 그리고 학교와 학교의 교훈은 성경이다.⁴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칼빈의 교육사상에서 중요한데, 이 지식은 성령의 도움으로 자연과, 교양학과 과학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인간은 먼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삶에

42)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194-195. 재인용 Calvin,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v.2. tracts, part 2 p.37.

43)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228.

44) T. H. L. Parker, *The Portrait of John Calvin* (London: SCM Press, 1954), 52.

궁극적인 목적이다. 세상 학문인 철학, 과학, 웅변술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제네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였고, 신 구약 성경에 대한 교육이 제네바 대학의 아카데미의 기초였다. 칼빈이 볼 때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진정한 지식에 이를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에 있지 않으면, 성경의 이론적 지식(head knowledge)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인간에게 궁극적인 참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다른 한편, 칼빈은 자신의 교육 사상을 피력함에 있어서 생활훈련을 강조하였는데, 즉 경건훈련을 통하여 전인격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질서와 시민생활의 질서를 강조하며, 이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러한 생활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연결되며, 칼빈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업이며, 이는 청지기로서 그리고 소명으로서의 직업관으로 발전하게 한다. 칼빈의 이러한 사상은 근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칼빈의 생활교육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까지 이르게 하며, 그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적 생활철학은 근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룬다.⁴⁶⁾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칼빈의 개혁 사상에서 교회와 학교는 개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두개의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그것을 성실히 적용하며 살도록 훈련받는 장소였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개혁 학교(reform school)”로 간주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하로 호

45)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19-20.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악랄한 거짓이다". 기독교강요 1. 6장-7장

46)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182-183, cf. 기독교 강요 2. 3. 10.

플(Harro Hopfl)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와 같은 주장은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교회의 중요한 임무는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명확히 ‘학교’로 기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때로 칼빈 역시 그렇게 언급했다. 더욱이, 몇 개의 그의 지도자 개념(master-conception)은 명백히 교육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두드러지는 것으로는 “훈육(discipline)” 그 자체로, 그 첫째 의미가 바로 ‘가르침(teaching)’과 ‘지도(instruction)’와 ‘훈련(training)’이며, 또한 권징(discipline)의 면에서 ‘징계(징벌)’와 ‘매(친숙한 교육 보조물)’의 의미이다.”⁴⁷⁾ 역사적 제네바 교회는 하나의 교육자(an educator)로서, 또한 하나의 훈육자(a discipliner)로서 그리고 하나의 보호자(a guardian)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⁴⁸⁾

칼빈은 자신의 개혁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칼빈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이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칼빈은 제네바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는 교육 목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도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교리 문답서를 작성했다. 칼빈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제네바가 개신교 사상의 중심지가 되는 학문의 훈련장이 되게 하였다.⁴⁹⁾ 먼터(William Monter)는 제네바의 목사와 신학자로서 교육자로서 활동한 칼빈의 개혁을 두고 극찬하기를, “칼빈은 설교자요 교육자이며 자문가로 제네바

47) Harro Ho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2), 203. 재인용 황성철,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칼빈의 신학과 한국 교회의 과제* (서울:합신출, 2002), 301.

48) 황성철,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302.

49) Calvin, *Le Catechisme de Geneva*, Pais, 1934. 15 이하. 재인용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7.

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목회 이외에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1564년 칼빈이 죽음으로, 제네바는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과의 투쟁에서 생존하도록 기여한 사람을 잃었다. 칼빈의 개혁 무대인 제네바는 당대의 개혁 교회와 사회의 모델이었다”고 주장하였다.⁵⁰⁾

II. 맺는말

필자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칼빈주의가 오늘날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칼빈의 종교개혁이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개혁에 관심을 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사회 전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려는 칼빈주의는 유럽의 화란,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프랑스에서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⁵¹⁾

칼빈의 노력으로 제네바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스코틀랜드 개혁가 닉스는 1555년 12월 영국 친구인 안나 로크 부인에게 자신이 목격한 칼빈의 제네바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아무런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야말로 사도 시대 이후로 지상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의 학교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곳이다.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충실하게 선포되고 있다고 나는 고백한다. 그러나 생활과 종교가 이처럼 신실하게 개혁된 곳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다.⁵²⁾ 다른 한편 역사가 찰스 보르고드(Charles Borgeaud)은 칼빈의 개혁에 있어, 제네바 아카데미에 대해 평가하기를, “아카데미의 설립과 함께 칼빈은 자기 과업을 달성

50) E. William Monter, *Calvin's Geneva* (NY Robert E. Krieger, 1975). 재인용 T. M. Moore,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John Calvin”, *WTJ* 46 (1984), 54.

51)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21.

52) 맥네일,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204-205. cf.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423-24.

했다. 그는 제네바의 장래를 확보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교회, 학교, 그리고 요새로 만들었다. 그것은 현대에 있어 최초의 자유의 본거지였다”라고 하였다.⁵³⁾

칼빈에게 교육기관으로 제네바 아카데미는 중요한 개혁의 수단이었으며, 실제로 칼빈의 개혁에서 교회와 학교는 중요한 기관이었다.⁵⁴⁾ 남아프리카의 칼빈 철학자인 반 더 발트(van der Walt)는 개혁의 수단으로 학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기를, “역사적 상황에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각기 다른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먼저 당국자들은 학교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들 나뉘어 있었고, 시민들(교회 회중)은 가난하고, 문맹이었으며, 그 자신들이 학교를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교회는 목회자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강한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교회와 신학자들은 교회 보호 아래 학교를 세워야 할 의무를 느꼈다. 그런 교회 학교들은 단지 부모들이 이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아래서만 용인되는 것이었다. ‘교회 학교’라는 개념은 하나의 독립된 사회 구조로서, 교육과 학교 분야를 넘어서고 있음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⁵⁵⁾ 이 진술은 교회와 학교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희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빈의 의도는 교회와 학교가 두 개의 별개의 사회 제도로서, 상호 의존적인 결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⁵⁶⁾ 이처럼 칼빈의 교육 사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53) 맥네일,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223.

54) 칼빈 뿐만이 아닌 16세기 다른 종교개혁가들도 교육의 양적이고 질적인 개선을 개혁의 수단으로 보았다. 참고 James M. Kittelson, “Luther the Educational Reformer,” *Luther and Learning*, de. By Marilyn J. Harren (selingsgrove, Penn., 1983), 95-114. 재인용 박준철, “중세말 독일의 반 성직주의와 대학 교육” *역사학보* 149, 148.

55) J. L. van der Walt, “the School that Calvin Established in 1559”, 311 재인용 황성철,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311.

56) 황성철,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311.

만한 것은, 그에게 교회와 학교의 양 날개는 개혁 활동의 축으로,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개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내용에서 보여준 초등과정과 고등과정의 교육과정의 내용과 연계성은, 오늘날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학문의 방향성에 큰 지침이 된다고 본다.

또한 칼빈의 교육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세상 학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칼빈의 사상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칼빈에게 성경과 세상 학문의 조화는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육 사상을 통해 우리는 바람직한 기독교 학문에 대하여 전망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학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문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필자는 기독교 학문이 단순히 크리스천이 학문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기독교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학문은, 학문하는 자가 먼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사유하는 분명한 기독교 신앙 고백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한편, 우리는 바람직한 기독교 학문의 방향을 위해 일반 학문을 무시하거나, 기독교와 일반 학문을 적당히 혼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세상의 일반 학문을 연구하며, 그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창조를 분명히 알고, 또한 자신의 학문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기독교 학문과 대학의 방향을 전망하면서, 칼빈의 교육 사상에서 보여준 인문학과 교양학의 강조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 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문 연구가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한 칼빈의 교육 사상을 검토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 내용이 당시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신대학교가 앞으

로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총신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 연구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 내용처럼 교양과 인문학의 교육을 강화하여, 현대 문화속에서 기독교적 안목을 갖고 세속화된 학문과 사회를 비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교회 개혁의 방향도 한국 교회가 교육 목회에 주안점을 두어, 포스트 모던 문화에 적응하는 지성과 영성을 갖춘 교회가 되길 바란다.